

문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作品集

‘금남로 가는 길’ 나왔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作品集 ‘금남로 가는 길’이 나왔다. 광주일보신춘문학회(회장 노창수)가 올해로 13번째 출간한 이번作品集에는 제5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김옥에(65)씨의 동화 ‘늦둥이’와 심사평, 수상소감이 실렸다. 김형중(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씨 등 심사위원단은 당선작 동화 ‘늦둥이’에 대해 “구성, 동선, 갈등, 결말의 시점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늦둥이 사나 무를 둔 할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이 동화의 전면에 잘 녹아 있는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와함께 박문재씨 등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33명의 시(34편), 동시(6편), 동화(9편), 소설(9편), 희곡(1편) 등 미발표 신작 59편이 실렸다. 시 부문 작품으로는 김인숙씨의 ‘물’과 정동철의 ‘물고기자리 별’, 노창수씨의 ‘잠 도둑’, 전원범씨의 ‘햇병아리가 담긴 것은’ 등이 담겼다. 소설 부문에는 광주일보문학상 심사에서 호평을 받은 양원옥씨의 ‘계도포’ 주원규씨의 ‘세기말, 길 위에서’, 오윤주씨의 ‘비밀의 화원’ 등의 작품이 실렸다. 또 지난해 신춘문에 당선돼 신입회원이 된 차노혜(소설), 김재준(시), 정인순(동화)씨의 수상작 ‘얼굴을 보다’, ‘증명사진’, ‘또야 또 아줌마’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수상소



감 등도 실렸다. 노창수 회장은 “자신의 창작이 ‘깊은 자연’의 본질이 없는 ‘얕은 문명’의 결과적 상황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며 “성공적인 대중성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러까지 생의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진솔한 작품을 쓰자”고 말했다. 한편, ‘금남로 가는 길’ 출간기념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2010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진일출판·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 가을 개막하는 제8회광주비엔날레가 외부 전시공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제7회광주비엔날레가 열렸던 의재미술관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을 찾아라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라” 올 가을 개막하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전시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전시 공간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협소해 매 대회마다 제2, 제3의 외부 전시공간을 따로 구해왔지만 올해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마지막까지도 지오니 총감독의 요구에 따라 전시 공간으로 옛 전남도청 별관과 문예회관 내 구시립미술관을 섭외했지만 안전성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오니 총감독이 옛 전남도청 별관을 지목한 것은 올해가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현재 8회 비엔날레의 전시구상에 한창인 지오니 감독은 지난해 중순 인터뷰를 통해 “역사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별관을 무대로 5.

재단이 염두해 둔 옛 도청별관 안전성 문제로 무산 옛 시립미술관도 리모델링 일정과 전시 기간 겹쳐 작품 대형화 추세... 박물관 등 외부장소 모색 서둘러야

18이 갖는 의미와 깊이를 은유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그동안 옛 전남도청 별관을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섭외를 의뢰했다. 하지만 최근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사용금지과 보강 조치가 필요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돼 광주비엔날레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재단과 지오니 감독은 구 시립미술관(광주시 북구 운안동)을 대안으로 선택했지만 이곳마저도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 기간과 비엔날레 전시기간이 겹쳐 여의치 않게 됐다.

재단은 현재 비엔날레 전시관,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을 주전시장으로 정한 뒤 다른 외부 전시 장소를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 건립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규모는 8천428㎡(2천549평)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수목 설치, 영상 등 현대 미술이 대량화되는 추세인데다 비엔날레 감독들이 더 많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작가와 작품 수를 늘리면서 전시 공간이 턱없이

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열린 제7회 대회의 경우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과, 대인시장 일대, 의재미술관 등지로 나눠 전시를 열었다. 특히 출품작 가운데 가로, 세로가 각각 4.5m, 6.5m를 넘는 작품과, 넓이가 324㎡인 초대형 작품도 있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전시공간이 협소한 광주비엔날레에 비해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는 3배, 독일 카셀도큐멘타는 4배, 스위스 바젤아트페어는 2.5배에 이르는 넓은 전용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는 베니스 전역에 국가참여 28개관과 특별전 51개관을 따로 마련하는 등 도시 전체가 전시장으로 변신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이 높아져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다 보니 참여작가들이 대형 작품을 출품하고, 감독들도 작품 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예산 문제로 전시관 추가 건립이 어려운 만큼 광주지역 미술관, 박물관 등 기존의 전시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석홍 세번째 시집 ‘내 이름과 수작을...’ 펴내

“등대가 체온처럼 뜨스하구나/등거리에 실려 달린 내 지게 인생/하늘 떠받들 목발 버리고 서서/두 팔 뻗어 저물추를 치켜세운다/벼, 보리, 서숙, 나무, 목숨의 밀천들/가슴으로 뚝뚝 꺼낸 너를/통째로 등쪽에 지고/남몰래 등골 밑에 짊어가야 하느니라”(오늘도 지게 지고 걷는다) 중)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전석홍(76) 시인이 시집 ‘내 이름과 수작을 걸다’(시화 펴냄)를 출간했다. “3년마다 시집을 내겠다”는 자신의 약속대로 2006년 ‘자운영

논독길을 걸으며’에 이은 세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서 전 시인은 농기구를 소재로 한 연작시를 비롯해 깊이 있는 시선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 무등산, 고향, 조국사랑을 주제로 ‘어머니 장독대’ ‘무등산을 오르며’ 등 76편의 작품을 3부로 나눠 담았다. 전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삶의 가파른 언덕을 넘는데 지팡이가 되었던 농기구는 박물관의 전시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농촌

삶의 애환이 역사처럼 서려 있다. 이번 시집을 통해 내가 체험하고 느낀 농기구를 시로 엮어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영암출신인 전 시인은 2004년 ‘현대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담쟁이 넝쿨의 노래’ ‘자운영 논독길을 걸으며’ 등을 냈다. 국가보훈처장(1988년), 제15대 전국구의원(1997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2008년)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에 머물며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해도 ‘화요예술·남도소리’ 무대 오른다

광주문화재단의 대표 기획프로그램인 ‘화요예술무대’와 ‘남도소리 상설무대’가 2010년에도 계속된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화요예술무대는 오는 2월 9일 조선대 동문 성악연구회의 ‘오페라 부파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여행’을 시작으로 모던앙상블 연주회, 더 싱어즈 연주회, 크로스 허브 앙상블 ‘허브’의 ‘크로스오버 더 바로크’ 공연 등이 열린다. 또 무지크바움앙상블 연주회, CNS금관5중주단의 ‘바하 VS 헨델’, 광주모이즈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광주아버지합창단 ‘가을맞이 가족사랑음악축제’, 한국예술가곡보급연구회 ‘한국 가곡의 향연’, 인카운터타악앙상블 연주회, 광주하모닉스여성합창단 연주회, 한소리 연주회 등도 만날 수 있다.



화요예술무대에서는 ‘무지크바움앙상블’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다스림 예술단의 ‘퓨전국악 동행’이 문을 열며 광주가야금연주단의 ‘봄을 여는 가야금 소리’, 우리소리연구회 ‘가향’의 ‘소리길을 찾아서’, 나빌레라 예술단 공연, 광주한국춤연구회 ‘5인5색의 춤’, 김덕수 디딤무용단, 터울전 전통예술단

오페라·가야금 연주 등 다양한 장르 시민결연으로 등 공연을 진행한다. 그밖에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 (사)한국소리보존회, 한국무용가 허순선, (사)낙안읍성가야금보존회,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등이 무대를 마련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Blessing' (작은 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The ad is organized into a grid of boxes, each containing the name of a business, its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businesses listed include restaurants, educational centers, and service providers across various districts of Gwangju.